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25년,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주목받을까?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통해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를 살펴본다

2025년 꼭 알아야 할 트렌드



옴니보어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진다. 집단 의 차이는 줄고, 개인의 차이는 늘고 있다. 옴니보어는 원래 '잡식상'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옴니보어 소비현상은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경계와 구분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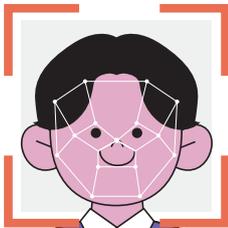
#아보하

한국 사회의 행복 담론이 바뀌고 있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아주 보통의 하루' 줄여서 '#아보하'라고 한다.



토픽경제

피자에 토픽을 추가하듯이, 기성 상품에 나만의 독창성을 덧붙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더욱 색다르고 다양한 토픽을 엮어가면서 옵션 추가가 기본보다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품이 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픽'이 더욱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토픽경제'라 한다.



페이스테크

누구나 먼저 얼굴을 본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페이스테크'가 뜬다. 생성형 AI 만능시대, 앞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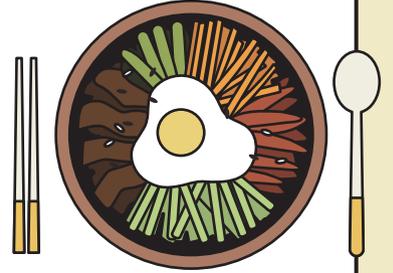


무해력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그래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방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만 같은 험한 세상,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즉 '무해력'이다.

물성매력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한다. 콘텐츠와 브랜드,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체화된 물성으로 경험하고자 하며,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그라데이션K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개념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5%에 육박하는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다. K-팝, K-푸드, K-드라마 열풍 속에서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찾기 쉽지 않다. 세계화와 로컬화가 서로 빠르게 섞이면서 지금 K는 0과 1 사이에서 그라데이션이 진행 중이다.

기후감수성

기후 변화의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다.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후감수성'은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공진화 전략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에 비즈니스의 해결책이 숨어 있다. 상호연결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산업과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동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고, 애플은 오픈시와 손을 잡는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진화전략, 공진화에 주목하라.

원포인트업

요즘 직장인들은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 삼아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원포인트업'이다. 1퍼센트의 변화면 충분하다. 지금 나만의 밸류업을 시작하자. 🐍



트렌드 코리아 2025
미래의 창

본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 2025> 출판사의 허가를 받고 별채 정리한 내용입니다.